



Art

아트인컬처
February 2021

Special Feature /
Newcomers 77
픽업! 한국미술의 영파워

Memorial /
김창열, '물방울'로 회귀하다

Artist /
이승택, 세계는 '나'로부터

Abroad /
아비 바르부르크
지성과 광기의 이미지

SPECIAL FEATURE

Newcomers 77

미술전문가 9인이 선정한
한국미술의 영파워

추천위원

권순우 취미가 대표

권혁규 독립큐레이터

남웅 미술평론가

이동민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이선 광주 이강하미술관 큐레이터


정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수연 P21 대표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황서미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내일의 아트월드를 견인할 '영 파워' 아티스트를 뽑았다. 일명, '뉴커머즈 77'. 이 매머드 특집에 미술전문가 9인이 추천위원으로 가담했다. 모두 오늘의 한국 미술씬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30~40대 젊은 기수다. Art는 이들에게 세 가지 추천 요건을 제시했다. (1) 만 39세 이하, (2)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3) Art 2018년 3월호 '동시대 미술인' 참여 작가 제외. 여기, 총 77인의 차세대 미술가가 모였다. 뉴커머즈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47인(팀), 남성 29인, 혼성 1팀으로 여성 작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미술계에 불어닥친 '우먼 파워' 돌풍이 거세다. 연령대로는 1980년대생 50명, 1990년대생 25명. 디지털 네이티브 Y세대의 총집합이다. 지역별 특색도 눈에 띈다. 수도권 작가들은 동시대 매체론 탐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 작가들은 사회적 발언과 개인의 욕망을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

Art는 뉴커머즈 77명의 작품을 5개의 주요 키워드로 분류했다. 동시대 미술의 키워드와 견주는 비평 작업이다. '젊음과 새로움'의 지형을 압축하는 지상전시다. 1990년대생 젊은 미술비평가 3인의 크리티크도 함께한다. 김맑음은 신생공간 세대의 작업 특징을 마찰력으로 해석하고, 유지원은 젊은 여성 미술인이 구축해야 할 촘촘한 전선을 제안한다. 콘노 유키는 2015년 이후의 한국 미술계를 평평함과 납작함의 시공으로 분석한다. 한국 미술의 내일을 짚어질 주역, 그 싱싱한 스펙트럼을 지금 펼친다!

① 화보

네오-조각, 마찰하는 물질들
메타 회화, 끝나지 않은 '평면 미션'
해시태그 컬처, 찌과 찝의 '가상 위계'
'리얼'한 올바름, 저항과 연대의 드라마
마이크로 내러티브, 작은 이야기의 바다

② 프로필

③ 크리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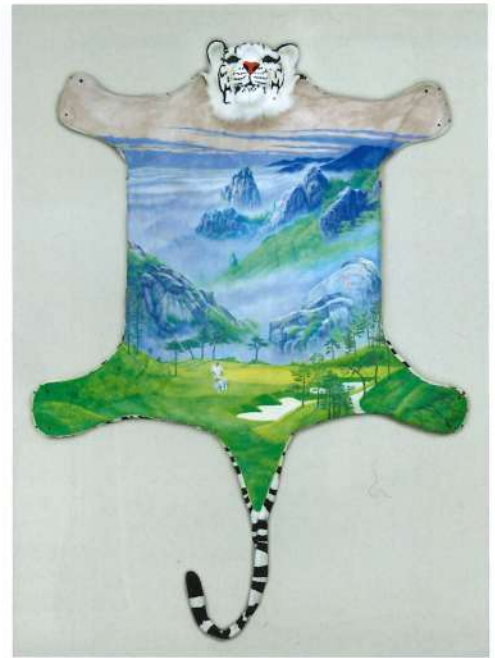
김맑음: 페허의 '마찰력'
유지원: '젊은-여성-아무개'의 전선 매핑
콘노 유키: 2015년 이후 시공(施工)의 미술

최이다 67 스위스 범죄

아래 · 싱글채널 비디오 15분 2018 / 최이다는 영상작가이자 <점선대로>, <노당약장>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이다. 막연하고 막막한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리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를 배경 삼는다. <스위스 범죄>는 컴퓨터 부팅을 사회적 처세술과 사교성에 빚낸 작업. 최이다의 무빙이미지에는 허무맹랑한 픽션과 기묘한 전복이 뒤섞여 있다.

장중완 65 백호와 권투 선수(오른쪽), 가을 직전(오른쪽 페이지)

가짜 백호 리그에 유화 1230×130cm 2016, 장치에 아크릴릭 과슈 145.5×112cm 2021 / 장중완은 초현실적 풍경과 엉뚱한 상황의 조합으로 현대 사회에 내재한 모순과 불안을 '웃프게' 묘사한다. "키치한 이미지에 묘사된 이상향의 풍경은 마치 과하게 밝은 미소로 친절을 베푸는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느낌이다."



‘리얼’한 올바름, 저항과 연대의 드라마

시각예술에서 ‘리얼’은 언제나 뜨거운 화두다. 사회 현실을 담는 리얼리즘에 동시대 작가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우선 급변하는 도시의 징후를 기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가군이 있다. 재건축이 예정된 오래된 아파트를 촬영하거나 개발로 황폐화된 삶의 터전을 그려낸다. 한국의 부리 깊은 고질병,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을 회화, 설치로 시각화하기도 한다. 한국의 양분화된 정치와 얽혀 곪을 대로 곪은 집단적 불화에 화해의 손길을 건넨다. 비극적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웃지 못할 희극적 패러디로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업도 있다. 특히 동물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믿음의 불확실성, 디지털 보안의 취약성과 첨단 기술의 양면성을 지적하는 작업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향이다.



